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추적자'로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른 나홍진 감독의 차기작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꽤 많았다. 그가 내놓은 두 번째 영화가 바로 '황해'. 이 영화는 연변과 한국을 오가는 큰 스케일로 제작된 액션 스릴러다.

연변에서 택시 운전자를 하며 빛에 쫓리며 살아간 구남(하정우)은 마작관에서 살인청부업자 면가(김윤석)를 만나고, 한국에 가서 누군가를 살인해준 거금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받는다. 구남은 빛도 청산하고, 한국으로 간지 6개월째 무소식인 아내를 찾기 위해 밀항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은 살인청부업을 하던 태원(조상하)과 사견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구남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한다.

경찰과 태원, 면가 모두에게 쫓기게

치히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매주 일요일과 축일에 교회에서 4시간 이상 거행되는 예배를 위해 모테르나 칸타타를 작곡해야 했던 것이다. 바흐의 칸타타는 대체로 폴리포닉하게 구성된 합창, 그리고 레치타티보와 아리아가 이어지고, 다시 마지막에 장대한 합창으로 끝나는 구성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바흐가 거의 3년 동안 매주 작곡한 칸타타는 오늘날 공연장에서 연주되며 바흐 음악 예술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

바흐의 칸타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에는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4곡 '시운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가 가장 유명하다. 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선율 가운데 하나로 이 곡만 독립되어 편곡 연주되는 경우도

영화 '황해' 中 바흐 '칸타타 BWV140'

무서운 세상에 눈뜨다

된 구남. 영화 속 구남의 삶은 무서운 세상에 대해 눈뜨지 못한 자의 그것이다. 면가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다. 그리고 호텔 커피숍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태원과 마주 앉는다. 이 긴장된 순간에 호텔 커피숍의 BGM으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 바흐의 칸타타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의 피아노 편곡판이다.

물론 바흐가 곡을 붙인 건 마태복음 25장의 구절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속마음과 암수를 계산하는 면가와 태원의 복잡한 눈빛이 오가는 순간과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라는 표제는 교묘하게 어울린다.

바흐는 생전에 교회를 위한 칸타타를 무려 300여곡 작곡했으며 그 가운데 200여곡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바흐의 칸타타가 많은 이유는 그가 라이프

츠히 성 토마스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바로 갈 리히터다. 그가 직접 조직한 핀켄 바흐 오케스트라와의 칸타타 녹음은 아르히브 음반사의 녹음으로 고스란히 남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연컨대 오늘날까지 리히터의 해석을 넘어설 연주는 없다. 교회 음악으로서의 송고함, 순음악으로서의 드라마틱한 감정의 고조, 장대한 사운드의 재현 등 모든 분야에서 리히터 연주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이에 반해 아르농쿠르와 콘센투스 무지크스 빈의 연주는 리히터의 벽에 도전하기보다 아예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시대악기와 당시 편성을 고스란히 이용해 당대 교회음악의 재현에 초점을 맞춰 바흐 시대의 예배당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광주 화단 풍성한 소장품전으로 봄을 맞다

소장품을 보면 미술관이 보인다. 광주지역 화단이 봄을 맞아 풍성한 소장품전을 연다. 미술관과 갤러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 전시는 한국 화단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광주를 품은 예술가 24인의 광주이야기'전(오는 3월 25일)은 지난 1992년 미술관 건립 당시 기증받은 서양화 24점을 선보이고 있다.

강연균·강용운·김영태·김재형·김종일·김환기·노의웅·박상섭·박영선·송필용·양수아·양인옥·오지호·오승우·오승윤·우재길·임직순·정상섭·정승주·조규일·진양욱·진원장·최영훈·황영성 등 이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적 인상주의 미학을 개척한 구상회화의 선구자 고 오지호 화백의 '설경'과 한국 추상회화의 대가 양수아의 '작품' 등 호남 현대 화단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대작들이 대거 출품됐다.

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강연균·우재길·진원장·최영성·황영성 등 지역 대표 작가들의 화려한 색과 다양한 실험정신이 결합된 작품들도 눈에 띈다. 문의 062-613-7140.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미술관인 무등현대미술관도 29일~3월 31일 지난해 수집한 작품을 선별해 선보이는 '신소장품전-염화시중(拮華示衆)'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희중·박혜순·오경규·손봉채·정승규·조혜숙·진시영·최영훈·최주휴씨의 작품을 선보인다.

설치작가 손봉채씨의 '이주민' 연작은 여러 장의 방탄유리 위에 그림을 그린 뒤 이를 층층이 포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이색 작품이다. 허공에 떠 있는 소나무 군락은

고향을 떠나 정착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한 삶을 느끼게 해준다.

또 박혜순 '꽃밭에서'는 화려한 색의 대비가 돋보이고, 조혜숙의 작품들은 인물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람객들의 호평으로 한 달가량 전시가 연장된 갤러리D의 '신소장품'전(오는 3월 14일까지)도 불만만 전시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는 강익중·도성욱·도윤희·배준성·손진아·여동현·이강소·이대원·이수동·이월중·이정록·장승효·전광영·최철우·황영성·데이비드 겔스타인·폴리안 오피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지로 독특한 질감을 살린 전광영의 작품과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배준성씨의 작품 등 떠는 소장품이 많다.

또 한국의 정서가 깔려 있는 은은한 빛과



손봉채 작 '이주민 III'

시립미술관 '광주를 품은 예술가 24인의 광주이야기'전

무등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염화시중(拮華示衆)'전

갤러리 D '신소장품'전, 관람객 호평 전시 한달 연장

곡선이 돋보이는 강익중씨 '달항아리'와 오리 그림으로 유명한 이강소의 'An Island-07079' 등도 추천작이다.

이밖에 움직이는 정물을 보여주는 배준성씨의 '양귀비와 정물이 있는 책장'과 데이비드 겔스타인의 'Flower Vases' 등도 눈여겨 봐야 할 작품이다. 문의 062-222-8011.

유명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보성 우정미술관의 '추상작가 31인의 비밀의 정원'전(오는 4월 22일까지)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명작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이용노·박서보·하인두·박래현·오수환·정충일·진옥선·배상순·이우환·곽덕준·곽훈·알렉산더 볼더·호안 미로·샘 프란시스·첸지양홍·야요이 쿠사마·마사키 야마다·요시하라 지로·오노사토 토시노부·히로키 아사토미·타나카 아츠코·이마이 토시미츠씨 31명의 추상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문의 061-804-10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래현 작 'Phenomenon of sea'

34인치 모니터... 낮선 시간 속으로

박상호 개인전, 내달 3일 우제길미술관

조각, 건축, 사진, 판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박상호(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씨가 27일~3월 3일 우제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작품과 사진 연작 등을 선보인다. '영원한 현재(The eternal present)'는 34인치 모니터에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상이 밝아질수록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들이 선풍하게 드러나고 영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인물(작가)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이색 작품이다.

그는 조선 미술대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2012 새 생명의 날개'

건축계획을 전공했다. 도탈갤러리(서울), 러시아 극동미술관(하바롭스크) 등지에서 1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아리랑 축전' 10월 광주 개최 앞두고 28일 전문가간담회·29일 시민집담회 열려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아리랑축전'에 대해 문화예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세계아리랑축전을 앞두고 국내 아리랑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문가 간담회에는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김명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장 등 아리랑, 축제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9일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지역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집담회'가 열린다.

시민집담회는 세계아리랑축전 개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축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오는 29일 시민집담회에는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르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